

관세청, 「전국 세관 위험관리 회의」 개최

- 관세청장,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준비상황 점검 및 무역·경제안보 대응 논의

- 관세청은 9월 18일(목)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세관 부서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전국세관 위험관리회의」를 개최했다.
 - 이번 회의는 「2025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」를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,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3일부터 포항, 대구 등 주요 공항만을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한 뒤,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영상으로 연결된 전국 세관 부서장들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하였다.
- 회의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빈틈없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를 준비 중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, “나라의 관문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 - 특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기간 동안 회원국 정상들을 포함해 2만여 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가 방문하는 만큼, 행사 참가자 및 반입 물품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.
- 관세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관련 현안 외에도 지난 3월 출범한 △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 대응 전담조직(T/F, 미대본)와, 지난 8월 신설한 △국민생명·안전·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대응본부의 위험관리 추진 상황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.

-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산 가장 수출, 원산지 둔갑 우회 수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.
- 또한 총기·마약, 불법식의약품, 생활·산업안전 위해물품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반입과, 무역거래를 악용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나 자금세탁·재산 도피와 같은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해 전 청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.

□ 이명구 관세청장은 “그간 관세청은 위험관리 활동을 통해 다수의 우회 수출을 적발*하는 등 상당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”며,

* 우회수출 적발실적(단위:억원) : ('23) 1,188 → ('24) 348 → ('25.8월) 1,799

- “앞으로도 정부의 민생안정 기조에 발맞추어,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안보와 경제 안보에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	책임자	센터장	정지은 (042-481-1160)
		담당자	서기관	남창훈 (042-481-3225)

